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경총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실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작년 2회에 걸쳐 발표('23.9,'23.11). 금번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국제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
⇒ 既 발표 보고서 주요내용은 첨부1(p10) 참조

2024. 2

◀ 목 차 ▶

1.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 2
 2.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 4
 3. 장시간 근로자 비중 추이 국제비교 / 6
 4. 요약 및 시사점 / 9
- [첨부1] 근로시간 관련 既 발표 보고서 주요 내용 / 10
- [첨부2] 보고서 활용 세부 데이터 / 11

< 동 보고서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분석 기준 >

- **[분석 방법]** OECD는 각 국가별로 주된 일자리(주업, main job)에서의 평소 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을 발표하고 있음. 반면, 우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OECD 장시간 근로자 비중 산출 기준에 일치하는 주당 평소 근로시간 통계를 조사하고 있으나 세부 원시 데이터를 미공개**하고 있어 활용할 수 없음. 이에 활용가능한 통계 중 OECD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기준과 최대한 부합하는 통계청 통계를 활용해 한국의 임금 근로자 장시간 근로자 비중을 추정

* 휴가, 공휴일, 파업 또는 질병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나 일부 계약된 초과근무 외의 특수한 초과근무 없이 통상 일하는 시간(OECD 설명)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가용 데이터는 평소 근로시간 '36시간 미만'과 '36시간 이상' 비중만을 공개하고 있어, 세부 수치 활용 불가

- **[보고서 분석 기준]** ① 'OECD가 취업자 통계에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기준1)과 ② 'OECD 공식 기준과 개념이 유사한 기준(기준2)을 설정하고, 기준1과 기준2를 각각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으로 나누어 OECD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와 비교·분석

- ▶ **[기준1 : 전업 실근로시간]** 모든 일자리(전업, 주업+부업)에서의 실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

- 이는 OECD가 현재 취업자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가별 비교에 우리나라 통계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실근로시간이 OECD 임금근로자 장시간 근로자 비중 기준(평소 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상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주업에서의 평소 근로시간 통계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전업에서의 실근로시간 기준 통계를 활용(OECD 통계 담당자 확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의 임금근로자 전업 기준 주당 실근로시간을 활용하여 분석

- ▶ **[기준2 : 주업 평소 소정근로시간]** 주된 일자리(주업)에서의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

- 우리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 활용하고 있는 지침서 상,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1주동안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조사되나,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일하는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평균 근로시간까지 포함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나, 통계청의 평소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이 10.3%, 주당 60시간 이상 2.7%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설문 결과는 평소 소정근로시간보다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OECD의 '평소 근로시간' 기준과 유사하나, 다소 과소 계상될 소지가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의 임금근로자 주업 기준 주당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활용하여 분석

⇒ 이에 경청은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비중을 분석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현황

- [기준1] 2022년 실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253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111만 명의 12.0%

* OECD가 공표하는 우리나라 취업자 기준 장시간 근로 비중 통계는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계산 시 전체 취업자 중 실근로시간이 0시간인 일시휴직 중인 취업자를 제외하고 있음(통계청 확인). 이에 동 보고서도 근로시간이 0시간인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분석

- [기준2] 2022년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224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172만 명의 10.3%

〈 표1. 202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수 (A)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수 (B)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B/A*100)
기준1 (실근로시간 기준)	21,110,592	2,532,502	12.0%
기준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1,724,092	2,243,683	10.3%

주 :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계산 시 전체 임금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0시간인 임금근로자는 제외(OECD 통계 기준)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총 임금근로자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24.1.30 추출

□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현황

- [기준1] 2022년 실근로시간 기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67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111만 명의 3.2%

- [기준2] 2022년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58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172만 명의 2.7%

< 표2. 2022년 우리나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국가	전체 임금근로자 수 (A)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수 (B)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B/A*100)
기준1 (실근로시간 기준)	21,110,592	673,597	3.2%
기준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1,724,092	581,483	2.7%

주 :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계산 시 전체 임금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0시간인 임금근로자는 제외(OECD 통계 기준)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총 임금근로자 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24.1.30 추출

< 그림1. 2022년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자 현황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24.1.30 추출

<참고>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자 비중 관련 사업체 조사 분석 결과

- 고용노동부 사업체 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을 분석하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71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였으며, 주당 60시간 이상은 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6%로 분석되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보다 훨씬 낮은 수준
- ※ 분석 대상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1,641만 명이며,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주당 근로시간=월 근로시간*12/365*7)한 수치
-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근로시간 통계는 가구조사 특성상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비교의 정합성(OECD 각 국 근로시간 통계는 가구조사)을 위해 동 보고서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활용. 특히 20년 전(2002년)과의 근로시간 비교는 자료 상 제약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만 가능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기준1 12.0%, 기준2 10.3%)은 OECD 평균*(10.2%)과 거의 비슷했으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기준1 3.2%, 기준2 2.7%)가 오히려 OECD 평균(3.8%)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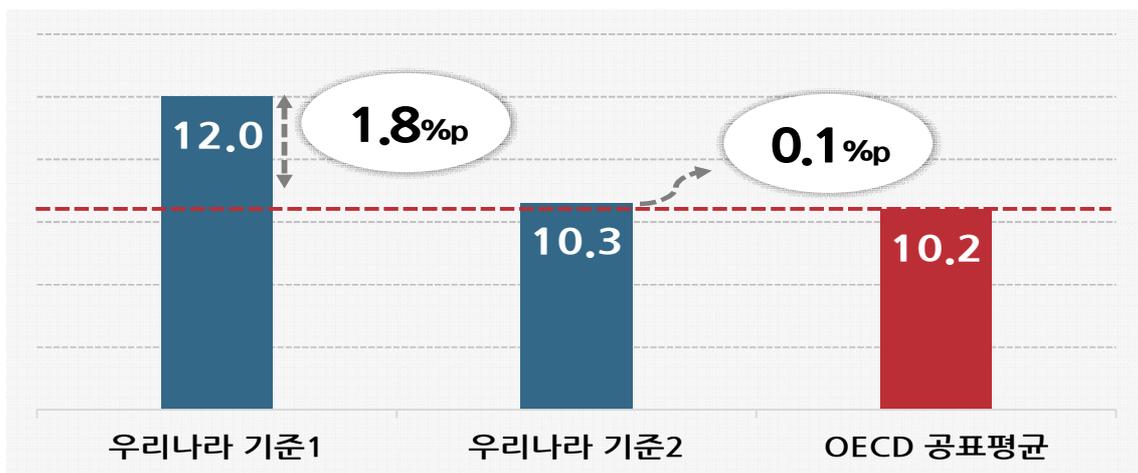
* OECD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평소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되며, OECD 평균은 OECD가 공표하는 가중평균

○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현황

- [기준1] 2022년 우리 실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12.0%로, OECD 평균 10.2%보다 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준2] 2022년 우리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10.3%로, OECD 평균 10.2%와의 격차는 0.1%p에 그쳐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2.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단위 : %)



주 : 기준1은 실근로시간, 기준2는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OECD 공표평균은 평소근로시간 기준으로 OECD에서 공표하는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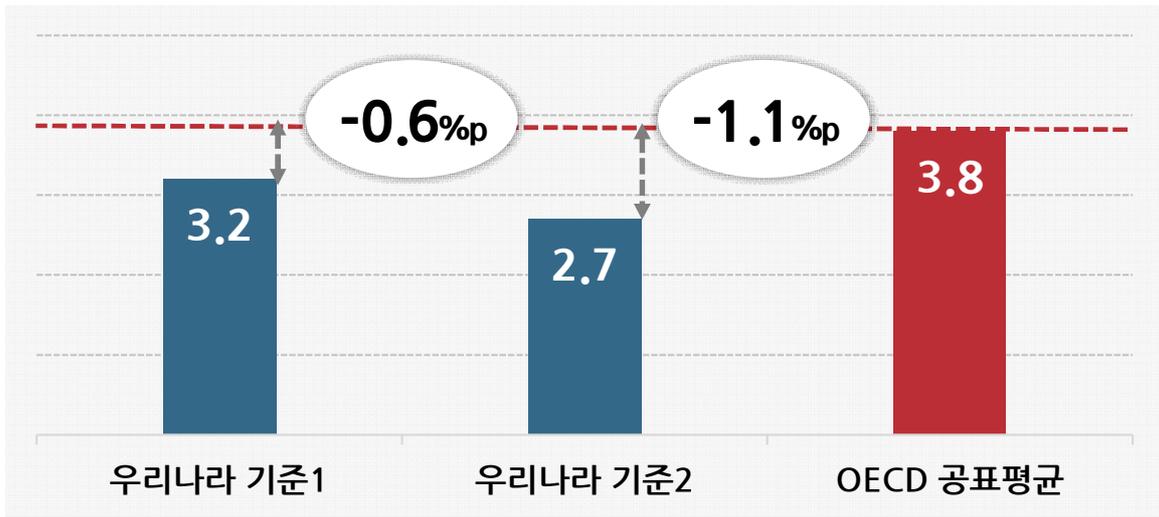
자료 : OECDstat, Incidence of employment by long usual weekly hours worked;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각 년, '24.1.30 추출

○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현황

- [기준1] 2022년 우리 실근로시간 기준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3.2%로, OECD 평균 3.8%보다 0.6%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준2] 2022년 우리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7%로, OECD 평균 3.8%보다 1.1%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3.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단위 :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표3.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

(단위 : %, %p)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기준1	우리나라 기준2		
		OECD 평균과의 격차	OECD 평균과의 격차	OECD 평균과의 격차	
50시간 이상	10.2	12.0	1.8	10.3	0.1
60시간 이상	3.8	3.2	-0.6	2.7	-1.1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1/4~1/7 수준으로)하여 2022년에는 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해짐.

* OECD는 각 회원국의 통계 결측치 등을 감안해 직접 계산한 장시간 비중의 가중평균값을 2002년부터 공표

①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 2002년 우리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1>(실근로시간) 47.9%, <기준2>(평소 소정근로시간) 42.6%로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5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후 2022년까지 우리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1> 35.9%p, <기준2> 32.3%p 감소했으며, 이러한 우리 감소폭은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폭 2.1%p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2022년의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의 1/4 수준에 불과(47.9% → 12.0%, 42.6% → 10.3%).
- 이로 인해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기준1>은 2002년 35.6%p에서 1.8%p로, <기준2>는 30.3%p에서 0.1%p로 대폭 감소했음.

< 표4. 2002,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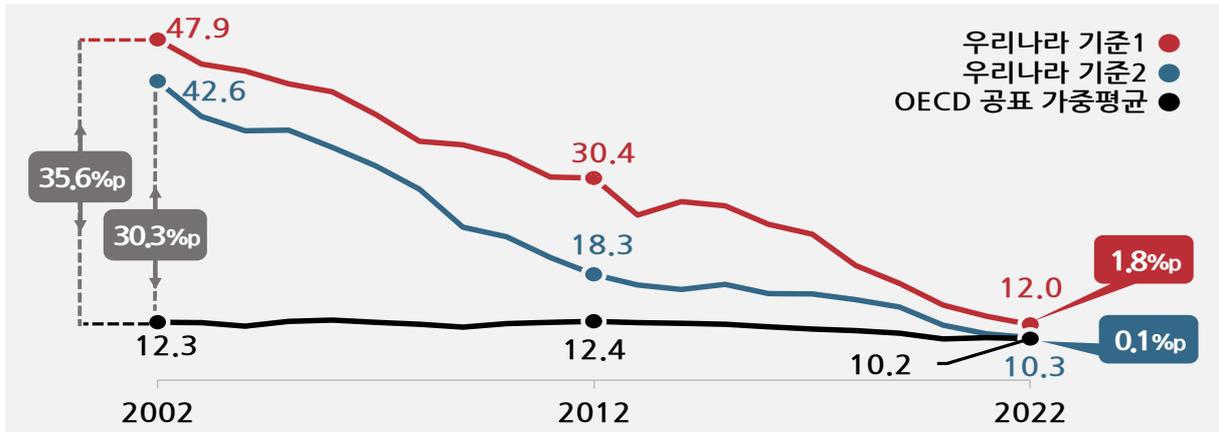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기준1	우리나라 기준2		
			OECD 평균과의 격차	우리나라 기준2	OECD 평균과의 격차
2002년(A)	12.3	47.9	35.6	42.6	30.3
2022년(B)	10.2	12.0	1.8	10.3	0.1
감소폭(A-B)	-2.1	-35.9	-	-32.3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그림4. 2002~2022년 우리나라와 OECD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추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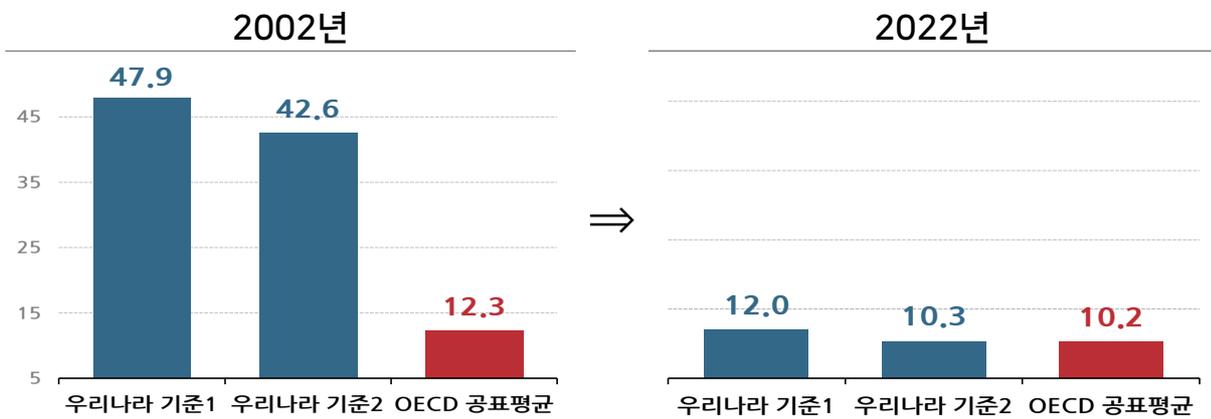
(단위 :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그림5. 2002,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단위 :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②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 2002년 우리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1> 22.1%, <기준2> 20.0%로 약 20% 가량의 임금근로자가 6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22년까지 우리 근로자 비중은 <기준1> 18.9%p, <기준2> 17.3%p 감소했으며, 이러한 우리 감소폭은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폭 2.0%p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준임.
- 2022년의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의 1/7 수준에 불과(22.1% → 3.2%, 20.0% → 2.7%).

- 이로 인해 2002년에는 OECD 평균보다 <기준1> 16.3%p, <기준2> 14.2%p 만큼 높았던 우리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22년에는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기준1> 0.6%p, <기준2> 1.1%p)으로 감소함.

< 표5. 2002,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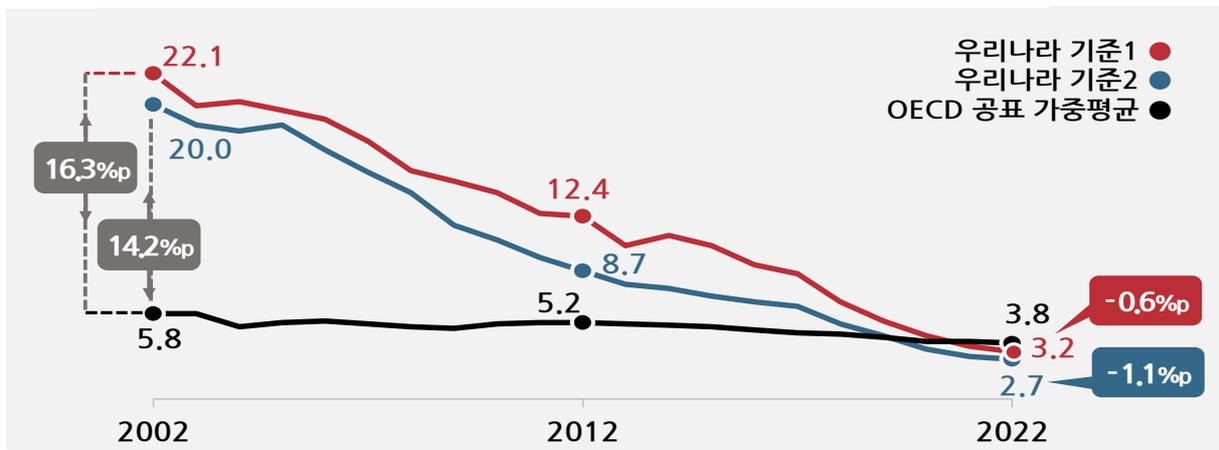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기준1	OECD 평균과의 격차	우리나라 기준2	OECD 평균과의 격차
2002년(A)	5.8	22.1	16.3	20.0	14.2
2022년(B)	3.8	3.2	-0.6	2.7	-1.1
감소폭(A-B)	-2.0	-18.9	-	-17.3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그림6. 2002~2022년 우리나라와 OECD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추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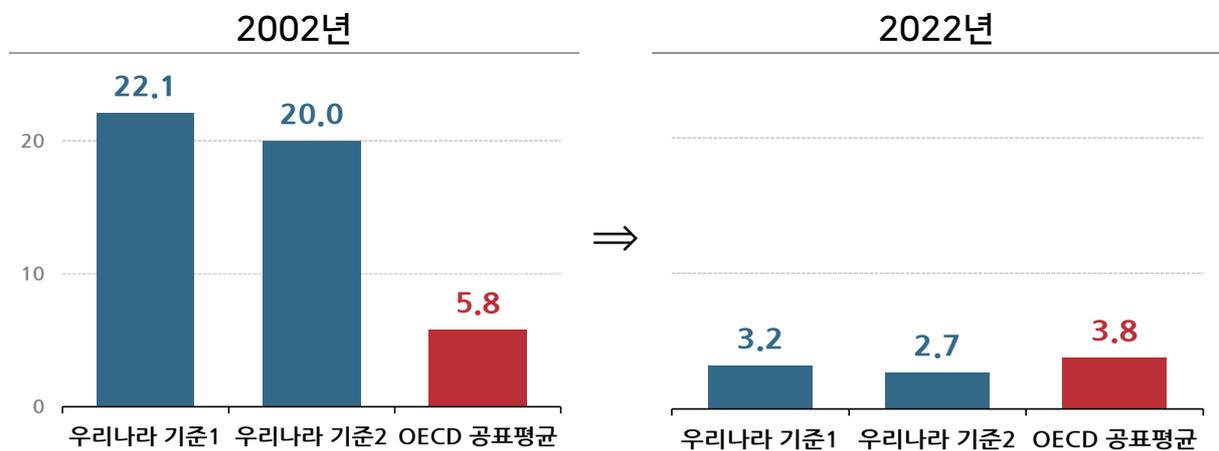
(단위 :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그림7. 2002,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비교 >

(단위 : %)



주, 자료 : 그림2와 동일

-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기준1>(실근로시간) 253만 명, <기준2>(평소 소정근로시간) 224만 명으로 각각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 10.3%
 -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기준1> 67만 명, <기준2>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임금근로자의 3.2%, 2.7%

- 2022년 우리나라 50시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1> 12.0%, <기준2> 10.3%로, OECD 평균 10.2%보다 각각 1.8%p, 0.1%p 높게 나타남.
 -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기준1> 3.2%, <기준2> 2.7%로 모두 OECD 평균 3.8%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

- 2002년 우리나라는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모두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20년 동안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1/4, 60시간 이상은 1/7 수준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짐.

-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지났음.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첨부1 근로시간 관련 既 발표 보고서 주요 내용 ('23.9.11, '23.10.19 발표)

①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 (23.9.11 발표)

-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며,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하여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월등히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2001년 700여 시간이던 격차가 2022년 185시간으로 축소
- 2022년 우리나라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 OECD 평균은 40.7시간(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
 - 장시간 근로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대상인 풀타임(Full-time)근로자 근로시간 분석이 합리적
 - 전체 근로자 실근로시간은 각 국 파트타임 관련 수치에 영향을 크게 받아 장시간 근로 정책 판단을 위한 통계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분석할 필요
 - 2001년 우리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OECD 평균 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2022년 1.3시간(韓 42.0시간 vs. OECD 40.7시간)으로 크게 감소
- OECD 평균과의 근로시간 격차가 크게 감소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 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려움.
 - ⇒ 이제는 우리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

②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 (23.10.19 발표)

- 산업구조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전체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종별 근로시간을 분석
 - 산업구조상 근로시간이 긴 업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전체 근로시간이 길게,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전체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종별로 근로시간을 분석
- 2022년 우리나라와 OECD 국가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19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우리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 *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 2001년에는 분석 대상 9개 업종 모두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실근로시간이 월등히 길게 나타났으나, 이후 모든 업종에서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일부 업종이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들 9개 업종은 OECD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1.4시간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1시간 감소

※ 전체 내용은 경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23.9.11 발표),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23.10.19 발표) 참조

첨부2 보고서 활용 세부 데이터

㉠ 2002년, 2022년 OECD 임금근로자의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단위 : %, %p)

순위	국가	2002년	2022년	증감폭
1	멕시코	20.3	27.2	6.9
2	튀르키예	45.6	25.4	△20.2
3	코스타리카	-	21.3	-
4	콜롬비아	37.5	20.5	△17.0
5	이스라엘	21.8	14.6	△7.2
6	뉴질랜드	16.2	14.1	△2.1
7	아이슬란드	25.2	11.0	△14.3
8	영국	14.4	10.3	△4.0
9	미국	11.7	10.2	△1.5
10	포르투갈	5.7	7.1	1.4
11	프랑스	-	6.2	-
12	룩셈부르크	2.0	5.7	3.7
13	칠레	6.8	5.6	△1.2
14	스웨덴	1.5	5.6	4.1
15	아일랜드	5.4	5.3	△0.1
16	스위스	0.4	5.1	4.8
17	오스트리아	-	4.4	-
18	체코	-	4.1	-
19	노르웨이	3.8	4.0	0.2
20	벨기에	4.5	3.9	△0.6
21	그리스	7.2	3.9	△3.3
22	이탈리아	3.9	3.8	△0.0
23	독일	4.7	3.7	△1.1
24	캐나다	4.6	3.7	△1.0
25	슬로베니아	7.0	3.3	△3.7
26	스페인	5.7	3.0	△2.7
27	덴마크	5.3	3.0	△2.3
28	폴란드	8.9	3.0	△5.9
29	슬로바키아	5.8	3.0	△2.8
30	핀란드	-	2.9	-
31	네덜란드	1.0	2.4	1.4
32	에스토니아	5.6	1.5	△4.1
33	헝가리	5.1	1.4	△3.7
34	리투아니아	1.9	0.8	△1.1
35	라트비아	16.3	0.8	△15.5
-	호주	15.4	-	-
OECD 공표 가중평균		12.3	10.2	△0.1

주 : OECD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2022년 비중이 큰 국가부터 나열하였음
 자료 : OECDstat, Incidence of employment by long usual weekly hours worked('24.1.30 추출)

☐ 2002년, 2022년 OECD 임금근로자의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단위 : %, %p)

순위	국가	2002년	2022년	증감폭
1	멕시코	10.3	12.6	2.3
2	콜롬비아	22.8	11.7	△11.1
3	코스타리카	-	8.6	-
4	뉴질랜드	5.9	4.1	△1.9
5	이스라엘	8.2	4.0	△4.3
6	아이슬란드	9.1	3.7	△5.5
7	미국	3.8	3.2	△0.6
8	영국	4.3	2.9	△1.3
9	칠레	3.6	2.7	△0.9
10	포르투갈	2.2	1.9	△0.3
11	프랑스	-	1.6	-
12	캐나다	1.8	1.6	△0.2
13	아일랜드	1.9	1.2	△0.7
14	그리스	2.9	1.2	△1.7
15	슬로바키아	1.4	1.2	△0.2
16	노르웨이	1.4	1.1	△0.3
17	룩셈부르크	0.7	1.1	0.4
18	오스트리아	-	1.0	-
19	벨기에	1.7	1.0	△0.7
20	스페인	1.7	0.9	△0.8
21	체코	-	0.9	-
22	스위스	0.2	0.9	0.7
23	독일	2.0	0.9	△1.1
24	폴란드	3.6	0.8	△2.8
25	스웨덴	0.4	0.8	0.4
26	덴마크	1.4	0.8	△0.6
27	핀란드	-	0.8	-
28	이탈리아	1.2	0.7	△0.4
29	슬로베니아	2.4	0.7	△1.7
30	에스토니아	2.4	0.6	△1.8
31	네덜란드	0.4	0.6	0.1
32	헝가리	1.8	0.4	△1.3
33	리투아니아	0.7	0.3	△0.4
34	라트비아	8.0	0.2	△7.8
-	호주	6.0	-	-
-	튀르키예	30.1	-	-
OECD 공표 가중평균		5.8	3.8	△2.0

주 : OECD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2022년 비중이 큰 국가부터 나열하였음
 자료 : OECDstat, Incidence of employment by long usual weekly hours worked(24.1.30 추출)

㉓ OECD 근로시간대별 임금근로자 비중 관련 각 국가별 활용 데이터

※ 아래는 OECD가 근로시간대별 비중 분석 시 활용하는 각 국가별 주업+부업에서의 평소 근로시간 데이터의 출처로,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동일한 통계를 활용할 것으로 추정

국가	수집 통계	조사 구분
호주	Monthly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오스트리아	Quarterly Mikrocensus	가구조사
벨기에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캐나다	Monthly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칠레	-	-
콜롬비아	-	-
코스타리카	-	-
체코	Quarterly Labour Force Sample Survey	가구조사
덴마크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에스토니아	Estoni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프랑스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핀란드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독일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그리스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헝가리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아이슬란드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아일랜드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이스라엘	-	-
이탈리아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일본	-	-
한국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멕시코	Encuesta Nacional de Empleo (ENE)	가구조사
네덜란드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뉴질랜드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노르웨이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폴란드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포르투갈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슬로바키아	Labour Force Sample Survey	가구조사
슬로베니아	-	-
스웨덴	Monthly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스위스	Swiss Labour Force Survey (ESPA)	가구조사
스페인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튀르키예	-	-
영국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가구조사
미국	Monthly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Current Population Survey)	가구조사

자료 : OECDstat, Incidence of employment by usual weekly hours worked 각 국 주석(24.1.30 수집)